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5 감사합니다



6 복지재단 2015년 정기이사회



6 2014년 기빙트리 캠페인



9-10 꿈 같은 순례를 마치고



11~12 허시온 조각정원의 로댕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 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 읽는 순서

2	글 읽는 순서	
	고국에서 온 편지 - 보금자리	유충희 신부
	카리타스란	
3	이사장 글 - 나눈다는 것	정인준 신부
	후원회장 글 - 긍정적 삶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지름길	유홍열
4	편집인 데스크 -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정영희
5	사랑	배현하 신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원 수혜자
6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2015년 정기이사회	
	2014년 기빙트리 캠페인 '산타가 되어주세요'	
7~8	옥수수 잔치를 알려주마	한상목
9~10	꿈 같은 순례를 마치고	장해영
11~12	허시훈 박물관의 조각 정원에서 보는 로댕의 명작	이순희
13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는 골 '예셈의 집'	이임순 수녀
14	스님의 웃음	홍사원
15	한국에서 받는 송금과 세금 보고	노성문
16	길원이의 '농구 야구인 지도자의 꿈'을 이뤄주세요	김만식
	고국 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17	후원회비 (2014년 1월 ~ 2015년 5월)	
1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1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20	불우이웃돕기 미용이벤트 (광고)	

고국에서 온 편지

보금자리

원주시 봉산동 753-1번지에 천사들이 모여 사는 보금자리인 '천사들의 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자락 밑에 위치한 이곳에는 중증, 경증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 120명과 이들을 돌보는 70여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해에 발령을 받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산 지도 벌써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성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일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와 또 다른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움을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집은 장애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들 그리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큰 은총이 내리는 곳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봉사자들은 눈물을 펄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봉사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방문자들을 변화시키고 때로 시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집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셨다는 성경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주셨다"(마르 10, 13-14, 16).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이들과 한 뼘한 이들, 무식한 이들을 사랑하셨고 소외 받는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천사들의 집은 너무나도 해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함께 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들려 주신 복음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곳입니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유충희 (대철 베드로) 신부

세상에는 육안은 멀었지만 심안은 밝고, 육안은 멀쩡하지만 심안은 어두운 경우가 흔합니다. 앙투안 생텍쥐페리(1900-1944)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루오(1871-1958)가 제작한 판화 시리즈 '미세레레' 55편에 써넣은 "때로는 눈 먼 이가 눈 뜬 이를 위로했다"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천사들의 집 아이들은 비장애인인 저희들을 매일 매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버지니아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응원과 사랑의 힘이 컸다는 것을 압니다. 고국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큰 힘 실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주님의 축복과 더 불러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삶이 지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주님 복음의 삶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이 곳 천사들의 보금자리에 언제나 오셔서 천사들로부터 무한한 위로와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글

나눈다는 것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신부

사람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유산(遺産)’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말을 들으면 법적인 차원의 ‘상속 재산’, 다시 말해서 ‘물려받는 재산’으로 생각하지요.

구약성서에서도 유산은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정신적 차원의 유산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다시 새겨보는 탈무드의 가르침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유산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흔히 요즈음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재물이거나 학벌, 좋은 직업 등을 물려주고자 하지만 탈무드의 가르침은 부모들이 가진 사랑, 근면성, 겸허함, 검소함, 이러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행’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탈무드의 뿌리가 되는 토라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소외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

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레위 25, 4)

세상은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편안함과 행복감에 도취되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다 내 중심이어야 하고 심지어는 하느님까지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가만히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다하다 안되시니까 칠 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땅을 쉬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란 소출을 남종 여종 뿐만 아니라 품팔이꾼, 몸 붙이고 사는 떠내기 거류민까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지극하신 사랑에서 가난한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는 ‘선행’의 정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행

에 옮기기는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도 먼 길!’ 머리와 가슴 사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거리는 엄청 가깝지만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새기고 실천하기란 힘들다는 말이지요.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쓰다가 남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도 쓰기에 모자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하느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 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빌려 주신 것을 선심 쓰는 셈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제일가는 유산이며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후원회장 글

긍정적 삶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지름길



유 홍 열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회장

다시 부정기 간행의 회지를 내며 우선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회지가 나오도록 애 써주신 여러 임원들과 봉사자 분들께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하나 걱정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한 편의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뇌종양 환자의 치료방법이 새로 개발되었다는 의료 발전에 대한 소식이었지만 의학상식이 적고 의

학적 이해능력이 없어서 실제 뇌종양 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자는 발병하기 2년 전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들을 자살로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밤길에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차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충돌,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여러 차례의 수술과 이후 어려운 재활치료로 그나마 건강이 회복되고 있던 중에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데요, 보통 뇌종양 환자의 경우 종양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데 뇌손상이 커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의 주 내용은 이 환자가 새로운 치료방법을 통해 치료과정은 힘들었지만 많은 진전이 있어서 거의 정상생활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줄거렸습니다. 기사 말미에 취재기자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치료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불행하다거나 운이 없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환자의 대답은 의외로 자신은 운이 좋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한편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혜택을 입고 유능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 운이 좋다는 설명이었는데 긍정적인 삶에 대한 그 환자의 생각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저 자신도 이런저런 일들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시기하며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 세상은 어차피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실 앞에 말씀드린 뇌종양 환자의 태도를 보면서 저의 태도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나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을 때 또 몇 달 전 내팔에서의 큰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인명피해와 생존자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그들은 무슨 잘못에 저런 참담한 일을 당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때에 거기에 태어난 것이 불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 가며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에 가는 자원봉사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모금운동을 통해 구호물자를 모아 보내는 것을 보며 역시 세상은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고 불공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난이나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웃이 있고 그들의 따뜻한 정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사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재난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은 이 세상에서,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는 이웃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카리타스가 항상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행복해질 그 날까지 카리타스 계속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집인 데스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내 스마트폰 프로필에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올려져 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이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폐시미즘이나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기 위해 약 2년 전부터 이 말을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가끔씩 보기 시작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마냥 무한할 것 같은 삶이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유한성을 자각하기 위해서다. 메멘토 모리는 ‘현재를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해도 삶에 소중함을 자각하라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올해도 4월은 진정 ‘잔인한 달’이었다. 진도 7.8의 강진이 강타한 네팔에서 7,4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안고 있는 네팔의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 예고도 받지 못한 채 순식간에 죽음을 맞았다. 또 1년 전 4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어린 꽃송이들이 가엾게 스러져 갔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든다. 태어남이 생성이라면 죽음은 소멸이다. 불가(佛家)에서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 했던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나이 들면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다람



정영희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편집인
워싱턴 한국일보 편집부장

쥐 쳇바퀴 같은 일상의 연속에서 감사함과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느슨해진다. 수 십년 살다보면 가족도, 주변 사람도, 일도, 풍경도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무덤덤해진다. 감동할 대상에 감동하지 않고 감사할 것에 감사를 모르면서 삶은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진다. 가톨릭에서 ME(Marriage Encounter)도 대화와 자기성찰을 통해 부부와 혼인 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재발견 프로그램이다. 일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삶을 재정립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약효가 그리 오래 안 간다는데 함정이 있다. 아는 선배 한 분이 ME에 갔다 온 후 “한동안은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동안 안 하던 것’도 하고 참 잘 했으나 3주 정도 지나니 그 약효(?)가 떨어져 시들해지며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 말해 웃은 적이 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자각하고 깨어있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이 당장 내일, 한 달 혹은 석 달, 1년 아니면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 우선순위

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명사가 나오는 전혀 상관 없는 단어로 생각하고,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미련한 착각에 빠져 산다. ‘내일’이 항상 있을 줄로 오해한다. 그러나 죽음은 도처에 있고 예고 없이 불쑥 찾아든다.

오늘이 내가 살아 숨 쉬는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후회 없는 삶은 그 물음에서 시작된다. 죽음이 찾아와 이 세상과의 인연의 끈을 놓게 될 때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내 소중한 가족, 내 아이들에게 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아이들에게 난 어떤 의미였으며, 무엇을 준 엄마였을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이들에게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각, 삶의 소중함과 감사함,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전해준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

법정스님은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산문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나누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고 했다. 사위(四圍)가 가장 적막하고 고요한 정점의 새벽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얘기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다. 5월 봄날은 그렇게 무심히 또 간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어제가 오늘을 만나는 여명의 시간에 이기심과 탐욕, 자만에 파묻혀 살며 세상의 불의(不義)에 눈감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나 뒤돌아본다. 누구나 죽는다는 자연의 진리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성화(聖化)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칼에 베이면 거기에서 흐르는 피에 그 쓰라림의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고통에 그것이 제일 큰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체하고 내가 감기에 걸리고 내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큰 병에 걸리면 그게 제일 큰 아픔이었고 그게 제일 큰 고통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고통,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자신을 다 내어 놓는다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분은 어찌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 내어놓으셨을까? 내 자신의 고통, 병고 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그분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하셨을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힘에 기대어 봅니다.

하지만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힘

사랑



배현하 안토니오 신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을 줍니다. 우리의 큰 고통을 치유해 주는 어떤 약보다. 나의 체기를 없애는 소화제보다 나의 감기를 낮게 하는 감기약보다 나의 팔 다리가 부러졌을 때의 진통제, 김스보다 그 큰 아픔과 고통을 낮게 하는 가장 좋은 약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낮게 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음을, 사랑은 새로운 희망을 준

다는 것을, 그러기에 두렵지만 또 다시금 그분 사랑에 기대어봅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당신 사랑 나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회원님 잘 지내시는지요? 앞서 쓴 글은 2009년 9월 1일자 '빛이 되라'에 제가 써서 올렸던 글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회원님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써 보았습니다.

회원님, 지난 12월 5일 서품식 이후 사제발령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인사에 포함되어 그간의 업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소임지인 삼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정을 나누고, 함께 하고픈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못내 아쉬지만 또 새로운 만남과 다음을 기약해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사랑, 정성 부탁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난방비지원사업 수혜자

쉽지 않았습니다. 한 겨울에 손님이 찾아와도 냉방에 앉혀야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전등까지 꺼진 방이었으니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은 냉동 굴에 왔다 간 듯 하다고 걱정 섞인 농담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아무 것도 모르

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받기 시작하였고 남한의 사회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찾게 되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포기하는 것 보다 도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한국 생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앞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잘사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엔 나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삶에 지친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남에게서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내가 잘사는 길 만이 고행에 계시는 부모님의 영전과 형제들에게도 보답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삶에 지치고 소외감과 배신감에 상처받은 저를 가족처럼 보듬어주고 안아준 고마운 많은 사람들과 저와 같은 새터민에게 도지지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버지니아 후원회) 여러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미소 짓는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민도 걱정도 없이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 아이를 바라보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탓만 하고 집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담당형사님, 언제나 밝게 웃으며 맞이 해주시는 건강지원센터 선생님들, 그 밖에 많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떨며 고생했던 고향생활, 돌을 갓 지난 어린 아들을 업고 고향인 북녘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나름 기대가 컸습니다. 우뚝 솟은 건물들과 많은 차들,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모두가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저의 한국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기 일쑤였고 친한 척 다가와서는 상처만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심한 허리통증과 생활고에 삶의 의욕도 사라져만 갔습니다. 덕분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 보려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왔지만 가족도, 아는 사람도 없는 저에게는 야속하고 가혹한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가난은 저의 아들에게까지 시련을 주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병이 잦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없는 살림에 약값과 병원비를 대느라 걱정만 늘어 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 만으로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희망도 행복도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 습한 여름날에도 보일러 한번 돌려보지 못했고 한 겨울 추위에도 하루에 한 번, 열지 않을 정도로만 난방을 해야 했습니다. TV를 볼 때면 전기세를 아끼려 전등을 모두 꺼야 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터라 손님맞이도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려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닦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감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신

성자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에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복지재단 활동

“무관심 속 소외된 이웃 사랑으로 감싸자”

원주 카리타스복지재단

2015년 정기이사회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회장 유홍열)은 지난 3월 23일 애틀랜타에 소재한 한강 식당에서 제12차 연례 법인 정기이사회를 갖고 2014년도 재무보고, 사업평가와 함께 2015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총 20만 2700달러를 모금해 17만 7500달러를 고국복지후원과 결연후원, 해외복지후원, 성심야구부 후원 등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복지후원과 후원회지 발간 및 우송 등을 위한 총 지출은 18만 7800 달러로 현재 잔고는 8만 8800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확정된 올해 사업 및 활동 계획은 적극적인 후원회원 확보, 재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이사 모임, 후원회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발간, 기빙트리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등이다.

이사장 정인준 신부(성 정 바오로 한인성당



아랫쪽부터 시계방향 반대쪽으로 김만식 이사, 정인준 신부, 유홍열 회장, 차명자 이사, 윤경자 이사, 유자경 이사, 김현숙 이사.

사진=한국일보 정영희 기자 제공

주임)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무관심이 큰 문제”라며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소외와 무관심의 대상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대접받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정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 이어 “마더 테레사가 캄캄타와 같은 작

은 곳에서 사랑을 전했듯이 우리도 네팔 등 소외된 이웃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자”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쓰고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 말했다.

유홍열 회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난해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지난 연말 기빙트리 캠페인을 통해 총 901명의 지구촌 불우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면서 “기빙트리 행사는 1년에 한 번 선물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 곳 후원자들 역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보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후원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기빙트리 캠페인의 형식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회에서는 신임 운영이사로 김현숙 조안나 이사, 김만식 재원오셉 이사가 소개되었다. 김현숙 이사는 후원자 확보 및 모금을 돕고 있고, 김만식 이사는 DC 갤러티 대학에서 ESL 과정을 밟고 있는 청각장애인 서길원 군 돕는 일을 맡고 있다.

기빙트리 캠페인 ‘산타가 되어주세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신부·회장 유홍열)은 2014년 기빙트리 캠페인을 통해 총 1만 7240달러를 모금하여 4개국 901명의 불우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을 전했다.

이번이 7번째인 이 행사는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 내역이 적힌 카드를 기빙트리에 걸면 후원자들이 20달러씩 내

고 떼어가면서 대신 후원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기빙트리에 걸리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초 성 정 바오로 성당 현관에 901개의 카드가 걸린 2개의 대형 트리가 설치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동은 원주기톨릭종합복지관과 천사들의 집 등 원주지역 복지관 및 공부방 어린이 249명, 광주 느티나무 공부방의 25명, 마다가스카르의 50명, 파푸아 뉴기니의 277명, 필리핀 빠야

파스 어린이 집 300명이다. 담당자의 귀국으로 연결이 닿지 않아 여러 해 동안 돕던 200여 명의 네팔 아동들은 이번 캠페인에서 누락돼 아쉬움을 남겼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은 학용품, 운동화, 빵, 우유, 과자 등이었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그 해에 1만 6700달러, 2009년에 1만 8720달러, 2010년에 2만 250달러, 2011년에 2만 60달러, 2012년에 2만 1340달러 그리고 2013년에 2만 600달러를 모금하여 불우아동들에게 성탄선물을 지원했다.



불우이웃 돕기 미용이벤트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오는 9월19일과 20일 양일간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제8회 미용 이벤트를 갖는다.

느 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원장 캐서린 박)의 특별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캐서린 박 원장과 헤어디자이너들이 저렴한 가격에 헤어 컷 서비스를 제공하며 퍼머 및 마사지 등 각종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무료 메이크업 강좌와 피부관리 상담도 곁들인다.

복지재단은 느 미라지 토탈 헤어살롱과 함께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총 6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다.



성 정 바오로 한인 성당 정인준 주임신부(가운데)가 사목회장단 임원들과 함께 기빙트리에 달린 카드를 살펴본 후 ‘나눔과 사랑’을 강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옥수수 잔치를 알려주마!”

24년 옥수수 잔치 뒷담화

질펀한 마당놀이가 끝난 장바닥처럼 ‘천사들의 집’ 마당은 고요합니다. 두 다리는 흥겨웠던 춤사위를 기억하듯 후덜(?)거리고 “끝났다”는 시원함과 함께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뽕이요!” 소리로 흥청거리던 장마당은 또다시 바쁜 삶을 시작하는 천사들의 집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하고 ‘인순이 언니야’가 공연하는 동안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던 솔밭은 이제 푸르다 못해 검푸른 녹색을 띄어갑니다.

잔치의 여흥이 가라앉기 전에 25년간 ‘천사들의 집 안주인’으로서 최기식 신부님 곁을 묵묵히 지켜오신 이병태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상목 (이하 한): 안녕하세요? 옥수수 잔치의 역사가 25년 가까이 되는데요, 옥수수 잔치의 시작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이병태(이하 이): 1983년 즈음 당시 원주교구는 외국원조를 재원으로 농촌본당 및 공소교회 지역에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뜻있는 몇몇 신자 분들이 외국원조가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손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즉석 모금을 합니다. 당시 화폐로 500원에서 2,000원까지, 이렇게 빈약하게 시작된 것이 우리 원주교구사회복지사업후원회의 시작이라고 최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후 원주교구 사회복지사업후원회는 사제총회를 거쳐 1984년 4월 13일, 1년 만에 121명의 회원을 가진 정식 단체로 발족하게 되면서 당시 사회사업국장님이셨던 최기식 신부님의 믿기지 않는 노력과 헌신으로 연 평균 4,000명씩 회원을 증가시키며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교구 내 복지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을 배경으로 1988년 4월 4일 심신장



애자를 위한 ‘천사들의 집’ 기공식을 갖게 되는데 그해 10월 9일 원주 문화극장에서 ‘천사들의 집’ 기금 마련을 위해 가수 인순이가 자선 디너쇼를 합니다. 그땐 뭐 지금처럼 초대형 인기가 수는 아니었지만 아마 이게 매년 옥수수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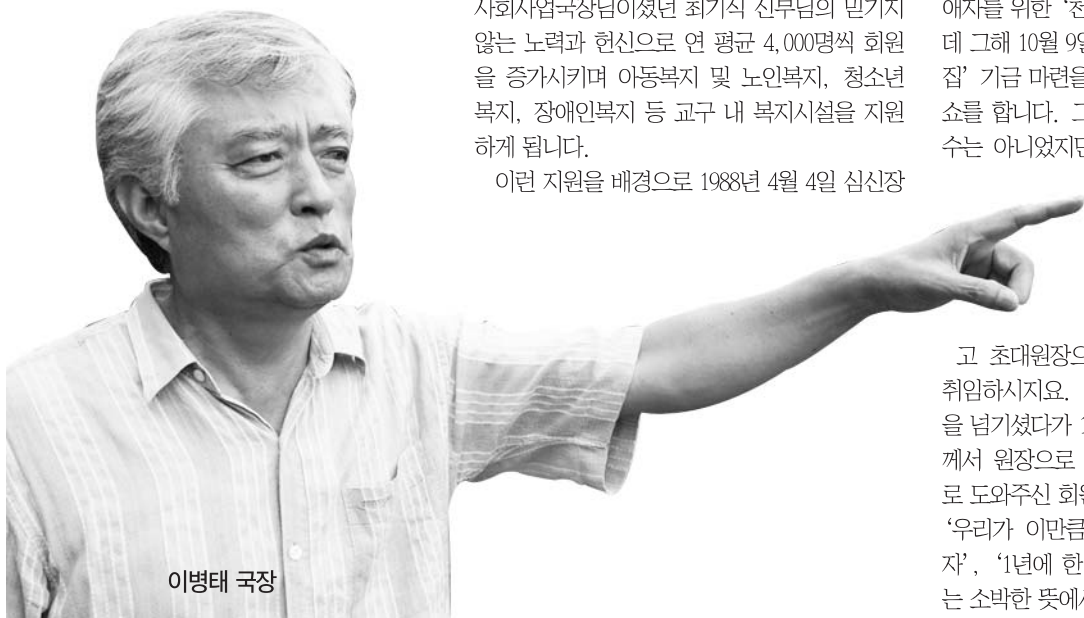
때마다 ‘인순이 언니야’가 와서 공연봉사를 하게 된 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1989년 11월 7일 천사들의 집이 무사히 준공되고 초대원장으로 당연히 최기식 신부님께서 취임하시지요. 그후 잠시 다른 신부님께 정책을 넘기셨다가 1991년 4월 10일 다시 최 신부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지금껏 정성으로 도와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자’, 또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좀 보여 드리자’, ‘1년에 한 번 좁은 만나서 얼굴 좀 보자’는 소박한 뜻에서 옥수수 잔치를 시작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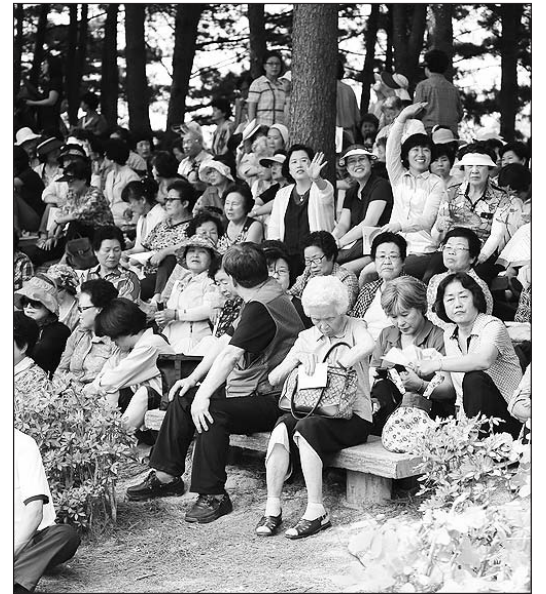
습니다.

한: 아, 그랬군요... 그런데 왜 하필 ‘옥수수’였을까요?

이: 정말 무수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의 집에 찾아가는 것도 꺼릴 만큼 다 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형편이 더 많이 낫지는 않았겠지요. 그래도 정이 많은 우리네 어른들은 찾아오는 누구에게라도 무언가는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짜장면을 시키겠어요? 삼겹살을 굽겠어요? 아마 할 수 있는 건 집앞 텃밭에서 키운 옥수수며 감자를 가마솥에 한 가득 찼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정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태 국장



↘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에게 금방 꺼내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옥수수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물론 옥수수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먹거리이기도 하고 여름에 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유가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겠지요.

한: 그렇다면 옥수수 잔치는 천사들의 집 잔치라 할 수 있나요?

이: 천사들의 집을 짓고 나서 옥수수 잔치를 시작했고 늘 이곳에서 행사를 치러 왔기 때문에 초기 회원들은 천사들의 집 잔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회원들이 천사들의 집을 자주 찾아오시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회원들은 후원회비 자체를 천사들의 집 후원회비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최기식 신부님께서 천사들의 집 원장이자 후원회장 신부님이시다보니 어찌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당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옥수수 잔치는 단연컨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후원회원을 위한 잔치입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배현하 신부님께서 원주교구내 본당을 순회하시면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를 알리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것도 원칙과 비전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보며 ‘만시지탄’의 감정이 드는 이유도, 또 그런 노력으로 세워질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새 위상이 기대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옥수수 잔치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지요.

이: 비?(웃음). 그렇죠. 옥수수 잔치하면 비죠.



늘 비가 왔고요. 하지만 신기하게 비가 오다가도 필요할 땐 딱 그쳐요. 미사 중간 비가 그친 틈에 구름 사이로 커튼처럼 빛이 쏟아져 내리는 ‘빛 내림 현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라도 나타나면 그야말로 하느님 은총이 되는 거죠.

한번은 옥수수 잔치 사흘 전까지 옥수수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옥수수 잔치에 옥수수가 없다니 정말 큰일났어요. 완전히 혼인잔치에 술 떨어진 격이지요. 황성, 평창, 저 멀리 영월, 정선까지 교구내 전 신자들이 다 동원되어서 간신히 구하긴 했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식은땀 나요.

한: 옥수수 잔치를 끝내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이: 올해 옥수수 잔치는 새삼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게 하는 잔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이제 늙었구나(웃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하자면 그동안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라는 게 결국 회원님들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고 고민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행사를 준비하는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축스럽지만 올챙이 국수, 뽕튀기, 감자떡, 옥수수 술, 옥수수 빵까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한다는 게 여간 정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음식이니까요. 이젠 후배들에게 물려주어도 안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시간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지나갔나 봅니다. 한겨울 벗겨진 듯 천사들의 집 주변은 상큼한 녹색빛입니다.

한상목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회)

꿈 같은 순례를 마치고

장해영 마리아

영월노인요양원 원장

우리 일행 42명은 부활 축일 후 첫 주 간에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유충희 신부님의 안내로 13박 14일간의 유럽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밤 비행기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암스텔담을 경유하여 비엔나에 도착하자마자 쉼부른 궁전 성당에서 미사로 순례를 시작했지요. 신부님께서는 강론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안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움을 맘껏 체험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성지 순례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매일 매일이 은총의 순간들이었지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현장에서 함께 걸어가는 기분이라~~ 천 년의 세월을 두고 변함없이 이어져 온 미술품과 도시의 문명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현장 앞에서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경건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북서쪽 교외의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레오폴드 스베르크 언덕 위

에 자리 잡고 있는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900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도원은 광대한 터널로 이루어진 지하와 저장고의 규모에 또 한번 놀라고 수도원 경당에 모셔져 있는 12세기에 프랑스 베르뵈 출신 니콜라우스가 1181년에 제작한 철보제단의 규모와 황홀함에 입이 벌어졌지요. 51장의 판넬에 화려한 금을 입혀 성서 이야기를 어찌 그리도 섬세하게 묘사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성물방에는 수도원에서 만든 질 좋은 와인들이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900주년 기념 와인 몇 병을 구입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변에 요새처럼 지어진 멜크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가진 멜크 수도원은 오스트리아 국민의 정신적 요람으로써 바로크 양식의 진주라 불리는 유럽 최대의 바로크 양식 건축물로 그 화려함과 규모가 장관입니다.

절제된 로마네스크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빈틈없이 가득 찬 바로크의 화려함은 낯설기까지 했지요. 마리아 테레시아 여제가 “이곳을 와보지 않았다면 평생을 후회할 뻔 했다”고 극찬했다는 멜크 수도원은 1702-1736년 개축을 통해 완성되기까지 주위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건물의 화려함과 함께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며 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의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The Name of the Rose)’의 배경이 된 곳으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아일랜드 귀족출신이지만 멜크의 수호성인이 된 성 콜로만의 일화는 멜크 수도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콜로만이 성지순례를 하다가 1014년 멜크에서 첨자로 몰려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를 매단 고사목에서 새순이 돋고 꽃을 피우자 사람들이 놀라서 시신을 수습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몇 해 뒤 큰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갔는데 콜로만의 무덤만 멀쩡히 남아있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콜로만을 멜크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멜크는 유명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벤베르크 왕조의 레오폴트 2세가 베네딕도 수도원에 성채와 땅을 내주게 되어 멜크 수도원이 탄생된 것이라 하는데, 박물관에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성구들과 수도사들의 생활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믿음과 고행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례할 때 지니고 다녔던 손으



로 쓴 필사본도 인상적이었고, 12세기에 보리수로 제작된 평화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고통 중에도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지요. 8쪽 짜리 제단화와 성화들은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목상이며 피정이 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감상해도 부족할 것 같은 멜크 수도원 순례를 단 몇 시간에 끝내고 또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전원도시 팔츠캄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느님께 울먹거리며 탄성을 질렀지요.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산과 호수를 품은 볼프 강 호수의 맑고 청아한 천연의 풍광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내린 호수는 모든 것을 청정하게 만들었지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며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으니까요. 우리 일행은 하룻밤이 너무 짧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밤 늦도록 호수변을 떠나지 못했지요.

스위스 취리히의 상트 갈렌 수도원 대성당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프레스코천정화와 벽과 기둥마다 그려놓은 미술조각이나 장식들이 상상 이상으로 화려함에 눈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 부속건물인 도서관은 ‘영혼의 약국’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고, 휘어지고 굽어진 장식장이나 난간들이 가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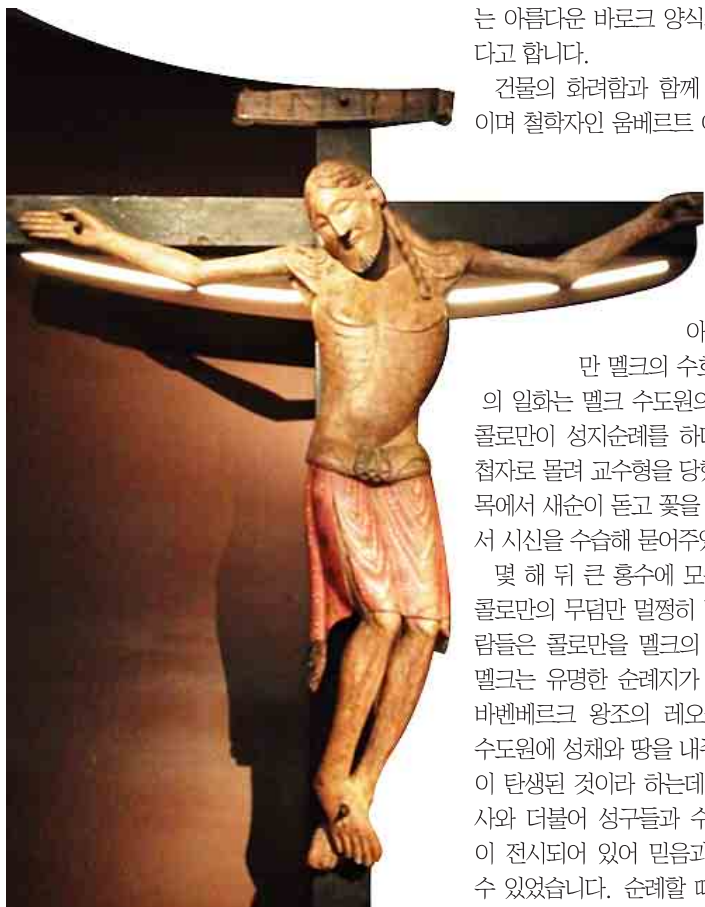
베네딕도회 수사들이 학문과 예술을 통해 주님을 더 열렬히 찬양했던 곳, 천장은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벽화와 함께 15만권의 장서 가운데 중세수도사들이 필사한 고서가 약 2천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으로 미려한 글씨를 인쇄한 듯 정교하게 적어 넣었을 지 천 년이 흐른 세월에도 수도사들의 기도와 정성이 느껴지면서 이 도서관은 정말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영혼의 약국)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은 성모상으로 유명한 스위스 최대의 순례지이면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꼽히는 아인지델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수도자들은 전세계 각지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배려하여 검은 성모상에 매달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히는데 우리는 검은 성모상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영광을 누린 후 수도원 신부님의 안내로 한국 올리베타노 베네딕도회 수녀님들이 만들어서 기증했다는 붉은 색으로 된 화려한 한국전통의상을 제의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검은 성모상’에는 순례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목각 성모상이 검은색을 띠는 이유도 순례자들이 쉽 없이 촛불을 켜서 생긴 그늘을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인지델른 수도원 대성당은 18세기에 지어진 스위스 바로크 건축물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 그려지고 조각된 천사상만 해도 천 여 개가 넘는다 합니다. 현재는 수도 성소가 급격히 줄었지만 수도자들의 찬송은 1100여 년 전이나 변함없이 웅장하게 수도원을 채우고 있다니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마을에 거대한 베네딕도 수도원이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은 천 년을 거슬러올라갑니다만, 수도원의 존재로 인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마을 또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화 같은 나라, 그림책으로만 보던 나라, 스위스 지역을 순례하면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작은 나라가 철저한 중립을 지키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돌 때마다 알프스 산맥 사이 사이 아름다운 초원과 그림 같은 집들이 높이 솟은 눈 덮인 알프스 만년설과 조화를 이루며 황홀하게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탄을 거듭하며 어느새 작셀튼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성클라우스 생가 옆에 지어진 피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스위스의 수호 성인 클라우스의 생가와 은둔소와 경당이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인은 수도자도 아니고 평범한 농부로서 가장이었고 아내와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기후와 자연과 싸우고 땅을 경작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늘 기도 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친구 신부에게 의논했지만 부인의 허락 없이는 떠나지 말라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고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갈 용기도 없었지만 결국 하느님을 위해 부부의 연을 끊기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혼배성사로 하느님이 보내준 정배인 남편 클라우스에게 부인 도로테아는 “오늘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빼앗아가는 날입니다. 그 예식을 피 흘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하며 은수 생활에 필요한 소박한 옷들을 만들어 주었다 합니다.

클라우스 성인은 늦가을 가족들이



겨울을 나도록 추수를 끝낸 후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수도복과 비슷한 소박하고 초라한 옷을 걸치고 한 손에 묵주를 들고 한 손에는 순례자의 지팡이를 들고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인사를 한 후 생후 16주된 막내아들을 품에 안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뒤 부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도 다시는 느낄 수 없는 영원히 세속의 인연을 끊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들 다섯과 딸 다섯, 이렇게 열 명의 자녀와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길이 고난이며 피눈물 나는 희생의 길이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어쩌면 클라우스의 부인 도로테아의 심정이 더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남편도 없이 자녀 열 명을 뒷바라지하면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했던 삶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을까 생각하니 부인의 삶이 더 측은하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고작 생가 언덕 아래 뻗어 보이는 곳에 터를 잡고 20년간 은둔생활을 하며 세상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오직 성체로만 연명했다고 하니, 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였을까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가족을 지척에 두고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 은둔처를 가보니 반 평도 안되는 초라한 방에 돌베개만 있었습니다. 이미 클라우스는 살아있는 성자로 통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멀리 조용히 살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문이 나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상담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 묻는 말에 “성체가 나의 음식”이라 답했던 성인의 기적적인 삶은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골이 상절한 몸골로 우리를 바라보는 성인의 눈에서는 신비한 힘이 느껴졌으며 묵주를 거머쥔 손에서는 성스러운 평화의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500년 전처럼 지금도 성인의 집 아래에는 고즈넉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으며 순례자들에게 성인의 위대한 삶을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피정의 집 아름다운 경당에서 아침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인의 삶을 묵상했고 버림과 비움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언젠가 이곳을 꼭 한 번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이곳만 왔다가도 아깝지 않다고~ 충분히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위해 2년 전부터 손수 일정을 잡아주시고 안내까지 맡아 주

신 유창희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서 깊은 현성당과 수도원, 피정의 집 등에서 매일같이 봉헌해 주셨던 미사와 강론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넘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셨고, 아니 우리와 함께 가셨고 먼저 인도하셨으며 무엇을 느끼고 볼 것인지 알려주셨기에 순간순간이 은총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순례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이토록 넓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2년 후 우린 또 새로운 여정으로 순례를 시작하기로 하고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려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떠나려고 합니다.

허쉬혼 박물관의 조각 정원에서 보는 로댕의 명작

〈Sculpture Garden〉

스미소니언 뮤지엄

이순희 아네스

뒤태에서 느껴지는 명품은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허쉬혼 뮤지엄(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원형 복도의 전시 작품을 관람하다 멀리 뒤태의 아우라에 반해 다가가 작품을 확인하면 어김없이 대기들의 작품이다. 허쉬혼 박물관은 우라늄 광산 재벌 조셉 허쉬혼(Joseph H. Hirshhorn)이 기증한 현대회화와 조각품 1만 2000점이 전시된 스미소니언 19개의 박물관 중 하나이다.

이 박물관의 백미는 조각정원인데 사전 정보가 없으면 지나치기 쉬운 장소이다. 본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관람객의 동선이 자연스레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면보다 움푹 내려가 있고 이정표도 없어 볼거리 많은 내셔널 물의 쉼터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평생 한번 감상하기 힘든 프랑스의 오귀스트 르네 로댕(Auguste René Rodin, 1840~1917)의 최고 걸작 조각작품이 잔디밭에 방치된 듯 널려있다.

현대 조각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댕은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감히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와 견주는 유일한 조각가이다. 현대회화는 19세기 아방가르드 화가들이 포문을 열었지만 로댕은 본질적 변화가 어려운 삼차원 미술 장르 조각에 획기적인 혁신으로 미술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수녀원에서 사망한 누나의 죽음으로 수도원에 입문하였지만 예술에 대한 갈망으로 몇 달 후 다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로댕은 대리석, 청동, 석고 등 전통적 재료로 인체의 움직임과 입체적인 표면을 다양한 빛의 효과로 포착하여 유연하게 표현하였다. 로댕의 작품은 역사, 신화, 알레고리 등 이상화된 주제의 재현에 중점을 둔 전통조각과는 다르게 텍스트나 내러티브와 연관성없이 특별한 주제가 없다.

텍스트의 부재-평범한 여성의 몸

로댕은 직업 모델의 정해진 진부한 포즈보다는 아마추어 모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영감이 오는 순간 작업을 시작했다. 무명의 평범한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웅크린 여자 Crouching Woman〉는 선정적인 남성의 욕망과 시선의 대



〈웅크린 여자〉 1880~1882 cast 1962 브론즈 95.1 x 70.2 x 61.5 cm



〈걷는 남자〉 1900 cast 1962 브론즈 214.0 x 155.8 x 73.1cm

상적 주제인 여성 누드를 세속적인 일상화의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거의 누드로, 창조적이고 강인한 사고력과 정신을 담은 외피인 인체의 근육과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독특한 표정을 끌어내 미학적 완성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좌대의 여자는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변형되었다.

왜곡된 여자의 비틀리고 움직임을 강조한 불편한 자세와 적나라한 노출 그리고 거친 표면은 관람객을 당황시킨다. 이런 강렬한 시각적 충격은 기존 작품을 관념적인 구시대의 유산이자 인위적인 조각으로 치부하게 된다.

더 이상 조각은 미적 환영 혹은 완결된 주제 고유의 정체성을 외형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가 창조한 이미지는 형태적 의미나 정체성 없이 관람객이 인물을 대용한 순간 경험하며 탄생한 의미와 관계를 맺는다. 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미적 인식 파괴로 추상미술과 연계되며, 작품 제작과 감상에 새롭게 탄

생된 조각어휘는 현재에도 주요한 예술적 의사소통이다.

미완성, 파편화의 완성

로댕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델의 역동적인 인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걷는 남자 Walking Man〉는 평범한 남자의 몸을 주제로 하였다. 이 작품의 미화되지 않은 형체는 사람의 실물을 본 뜬(body-casting) 것이라는 의혹으로 미술계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초점은 인체가 아닌 동작으로, 역동적으로 걷는 남자의 근육과 피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주요 과정의 흡집과 기포를 남긴 상태로 마감하였다. 관람자는 형태 너머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조각 표면과 물질로서의 대상을 명백하게 전달하는 작품에서 미완성 혹은 훼손된 작품을 상상한다.

로댕은 작가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미완성을 자기 양식으로 도입하여 고대 조각의 보존과정에서 훼손된 박물관의 파편화된 토르소를 자신의 작품에 재현하여 창작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는 자의식적 미완성 형식으로 분절되고 파편화된 인체 일부를 독립적인 완성 작으로 선언하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화법은 초현실주의, 큐비즘, 추상미술 탄생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로댕의 보이는 자체의 사실성을 추구하는 자연주의 경향이 잘 드러난다.

일상화된 형상 속 내면의 세계

로댕의 불멸의 〈발자크 기념비 Monument to Balzac〉는 고전조각의 완전무결한 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고뇌와 일상의 욕망에 찬나약한 인간의 면모를 재현하였다.

발자크 사망 40주기 기념비를 위해 로댕은 발자크의 정신세계를 느끼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포즈로 수많은 습작을 하였다. 그는 인물의 외형적 표피가 아니라 방대한 문학세계로 파악된 대문호의 심연과 같은 내면에 집중했다.

완성작은 발자크가 실제 집필 시 즐겨 입던 커다란 망토를 휘감은 비대한 초로의 노인을 거대하고 둔중하게 재현했다. 그는 전통적인 영웅 조각의 업적을 상징하기 위한 장식과 알레고리를 배제하고 정과 끝 자국이 노출된 과격적인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주문자인 문인회는 예술혼이 느껴지는 위대한 작가상과 다른 결과물에 작품 인수를 거부하며 사회적 논란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관람객은 세부 장식 없는 육중한 몸체의 돌

신적으로 변화시킨 불후의 명작이다. 칼레시가 주문한 이 작품은 14세기 잔 다르크에 의해 프랑스의 승리로 종식된 백년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를 포위한 영국군은 시민 6명의 목숨 요구와 봉쇄 해제라는 선언에 고위층과 귀족계급이 희생을 자원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정신으로 화자된다. 임신한 영국왕비의 간청으로 사형을 면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400년 후 기념조각을 주문하였다.

시는 용감한 시민들의 영웅적인 텍스트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념비를 원했는데 작품의 실상은 희생을 목전에 둔 인간의 불안과 절망에 고뇌하는 어수선했던 6명의 구성원이었다. 로댕의 설득과 파리 미술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반응으로 칼레시는 작품을 수용하였다.

이 작품의 독특한 인물배치는 공공 조형물의



《칼레의 시민》 1884~1888, cast 1953~1959 Bronze, 201.7 x 205.4 x 195.8cm

덩이 기둥에 거대한 두상이 얹힌 고대 거석과 같은 기단에서 머리까지 치솟는 인물을 만난다. 로댕은 발자크의 외적 형상과 삶 자체의 표현이라는 표명처럼 대문호는 응집된 에너지의 발산을 기다리는 포즈로 삶과 창작의 고뇌가 담긴 관조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관람객을 압도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의 실상

발자크와 함께 대표적인 《칼레의 시민》The Burghers of Calais)은 공공조각의 성격을 혁

관습을 파괴하였다. 정면이 없는 동등한 비중의 인물은 각 개체로 분리하면 6개의 완벽한 조각품으로 모여있는 군상은 교감과 접촉 없이 독립적이다. 관람객은 낮은 좌대의 원형 작품 주위를 돌며 인물의 다양한 제스처 특히 내면의 심층적 표현 수단이자 부수적 도구인 손과 발은 섬세한 디테일에 설득당한다.

조각의 예술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인 로댕은 천재 여류 조각가이자 제자였던 카미유 클로델과의 열정적인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로댕의 동일한 작품은 세계 곳곳에 산재하는데, 로댕 작품의 주요 권리를 이양 받은 프랑스 정부는 작품당 12점까지로 캐스팅을 제한하였



《발자크 기념비》 1891~1898 cast 1965~66 Bronze, 269.2 x 109.2 x 127.9cm

다.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본 《발자크》는 투어로 지친 관람객의 휴식공간이자 실내정원에서 인간 군상의 초월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칼레의 시민》은 서울 로댕 갤러리(현 플라토 미술관)의 정적 공간 속 작품의 운동감을 강조되는 모던한 화이트 큐브에서, 반대로 협소하고 번잡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복도에서도 만났다.

그리고 사계절 자연과 호흡하는 야외 조각정원에서 본 로댕은 가장 압권이었다. 파리 로댕 미술관의 연간 입장객 70만명에 비해 이 조각정원의 관람객 숫자는 훨씬 적을 것이다.

로댕의 예술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작품너

며 또 다른 신격화된 공간에 잘 모셔진 자신의 작품보다는 내셔널 몰의 잔디밭에 눈과 비 먼지로 입상과 사람들에 노출된 자신의 작품을 더 환영할 것이다.

겨울비 내리던 날 젖은 낙엽 위 내리는 빗속의 쓸쓸하고 처연한 청동상의 잔상과 여운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다.

이 외에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부인인 오노 요코의 작품과 장 아르프, 헨리 무어 등의 걸작품을 고즈넉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쯤 전설적인 로댕의 작품을 보며 감정의 사치를 마음껏 누리는 여유를 가져보자.

시설소개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는 곳 ‘예셈의 집’

이임순 수녀

예셈의 집 원장

‘예셈의 집’은 성인이 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입니다. 현재 다섯 자매가 함께 오순도순 하루하루 즐겁게 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평범한 집입니다. 무연고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가족이라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훈련은 물론 직업재활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일 뿐이지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구 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면 청소는 물론 정리정돈까지 알아서들 하고 특히 큰 아이는 저녁도 저와 같이 준비하고 낮에 있었던 재미났던 일도 나누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땐 정말 모녀지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아이는 학교에 다닙니다. 몸이 불편에서 남들과 같이 정규 학교에 다니진 못하고 집에서 틈틈이 사이버대학 인터넷 강의를 통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듯해서 올해 초에 입학시켰는데 생각보다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낮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돌아와서 저녁 먹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합니다.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다는 불평 없이 꼼짝도 않고 앉아 강의를 듣고 있어 기특합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천사들의 집’에서 생활했는데 함께 지냈던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많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월급이 적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데리고 전자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일자리 때문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만 빼고는 앉아서 하는 일은 다 잘하는데, 사장님께서서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잘 못할 거라며 일도 안 시켜 보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셨습니다. 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라서 일을 못할 거라고 먼저 판단을 내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는 여러분의 관심이 우선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더불어 일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 키우기

이해인 수녀

화분에 물을 주어 고운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란 물을 주어
우리의 존재를 꽃피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일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삶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웃음

2008년 버마 라고 불리던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에 갔을 때였다. 당시 군사독재하의 공립 학교 시스템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 더군다나 많은 아이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기본적인 교육마저 받을 형편이 못되었다. 정부의 부실한 교육시스템을 다소나마 보완해주는 것이 불교사찰이었다. 대개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를 절이 운영하는 지역학교에 보냈다.

나는 미얀마인 동료와 함께 찌는 듯이 덥고 비가 내리는 어느날 오후에 그런 학교를 방문했다.

넓적한 대지 위에 자리잡은 사찰 주변에 교실로 쓰이는 듯한 작은 집이 몇 채 있었다. 미얀마 불교 특유의 오렌지 빛 승복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주지 스님이 함지박만한 웃음을 띄우고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 방의 벽 한 면에는 문방구가 가득 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나지막한 교자상과 가스 스토브가 놓여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딸이자 보조원인 젊은 여자를 시켜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벽면의 책상 위에 쌓인 상자들 안에서 가지각색의 과자들을 꺼내 손수 우리를 대접했다.

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워낙 낙후해 주민들로부터 가난한 지역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는 아이를 위한 학교를 지난 10년간 운영해 왔다고 했다.

나는 정부로부터 얼마나 원조를 받느냐고 물었다. 원칙대로라면 스님이 운영하는 학교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스님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나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 당시 대다수의 불교지도자들이 군사정부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스님도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꺼리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그가 뒤이어 한 말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처벌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요.”

“정부 지침이라니요?”

나는 미얀마 정부가 처벌지침까지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물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이들을 다섯 대 이상

때리면 안된대요.”

나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섯 대가 너무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때려야 한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의아해하는 내 표정을 보며 그가 거듭 말했다.

“어린이들을 다섯 대 이상 때리면 안된대요.”

“스님은 아이들을 다섯 대씩이나 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죠, 나는 다섯 대보다 더 많이 때려야 한다고 봐요. 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유니세프는 물론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는 안된다고 믿어요. 단 한 대라도요.”

놀랍다는 내 반응에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매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매질이 더 필요한 아이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님은 이렇게 되물으며 호탕하게 웃고는 내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한 남자아이가 어쩌나 못되게 구는지 나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녀석을 때려야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으로 변했지요. 그아이 부모도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 넘치는 웃음이었다.

그 스님의 얘기는 아이들을 때로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믿어온 나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흔들 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스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어린이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처벌하면 안된다. 그러나 나는 회초리나 손으로 때리는 가벼운 매질은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며, 어린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간주되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 심지어 매질은 부모나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이라고까지 여겼다. 잘못 행동하는 아이를 볼 때 나의 반응은 ‘내가 저 아이의 부모라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치고 싶지 않을까?’ 이다. 적어도 적당한 매질을 자연

스레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서 자란 나의 세대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보니까.

홍사원 박사

전 유니세프 아동복지 자문관



한국에서 받는 송금과 세금 보고



노상문 공인회계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에 이래저래 많은 연고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과의 금전거래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받는 다든지 혹은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미국으로 송금해 오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내기도 한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세금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미간에는 조세협정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한미간의 세무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금전거래는 일단 해당국가의 세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보고를 마친 후에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다. 미 연방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송금받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법이 달리 적용된다. 즉 송금받은 돈이 자기 자신의 돈인지 아니면 증여성 송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민 오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은행 등에 예치해 두었던 자신 명의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 오는 경우에 별도로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를 포

함한 거주자는 미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생기는 양도소득이나 예금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제대로 해 두어야 한다. 만약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하려는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 때 송금서류 등을 외국 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의 경우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

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연방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은행에 10,000불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다면 개인 세금보고시 Schedule B의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6월 30일 까지 양식 FinCEN 114를 통하여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 2011년도 부터는 년말 기준으로 50,000불이 넘거나 1년중 어느 시점에서든 100,000불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에는 100,000불, 200,000불이 기준)하는 경우에는 양식 8938을 통하여 미 국세청에 4월 1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증여성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액이 100,000불이 넘으면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중에 학비보조나 병원 치료비 등을 위해 송금받았다면 이 금액은 예외로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으로부터 연간 15,358불 이상을 송금받으면 마찬가지로 세무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시 양식 3520을 통하여 송금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4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고 다만 보고할 의무만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의: 703-533-7200

▷주소: 7023 Little River Turnpike #202, Annandale, VA 22003

자신의 돈 송금해 오는 경우 별도 보고 필요 없지만 관련서류 잘 챙겨야
연간 100,000불 이상 증여성 송금은 양식 3520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지혜를 찾는 기쁨 -이해인 수녀

하루의 길 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임만 길어 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에 평화가 없을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묘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힘들 때,
지혜를 부릅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때에도,
글을 써야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에도
지혜를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역할을 할 때,
남에게 감히 충고를 할 입장이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떤 일로 흥분해서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때에도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며
친한 벗을 부르듯이 간절하게
지혜를 부릅니다.

길원이의 '농인 야구 지도자 꿈' 을 이뤄 주세요

김만식 재권 요셉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서길원 후원이사)

2011년 제작되어 히트한 영화 '글러브'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국내 유일의 청각장애인 고교 야구팀인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를 모델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이 야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충주성심학교 아이들은 야구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 나갑니다.

3대째 청각장애인 집안에서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서길원이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원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선·후배간에 인기가 높았고 학생회장, 야구부 주장, 기숙사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야구선수로는 일반 고교생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말 리그 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여 2할1푼1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대회 야구국가대표선수, 장애인 야구대회, 아 프로배 야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개인상을 5번이나 받았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농인 야구대회에서도 2



위를 하였습니다.

2011년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의 1승을 향한 도전이 MBC 창사 50주년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제작, 소개되며 길원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각장애인 야구팀이 있는 갤러렛 대학(Gallaudet University)을 방문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대학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선진 교육 시스템과 자신감을 갖고 밝게 생활하는 대학생들を見て 길원이는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실력을 닦아 한국 최초 청각장애인 프로 야구 선수, 야구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방문기간 동안 갤러렛 부속 고등학교와 가진 친선경기를 지켜본 갤러렛 대학의 '커티스 프라이드' 감독은 길원이가 갤러렛 대학에 입학하면 길원이를 대학 야구부에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미국에 도착한 길원이는 2014년 1월부터 갤러렛 대학에서 영어연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길원이는 "한국에선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또는 장애인이라서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도전 한 번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배움에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후 한국에 돌아가 장애인들의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능력과 학식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 한국 최초의 농아인 야구선수, 야구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길원이는 올해 꼭 대학입학 시험을 통과하여 가을 학기에 갤러렛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오늘도 어학연수원 수업은 물론 대학입학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이번 가을에 대학 입학을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현재 원주 카리타스 후원자들, 한미장학재단, 골돼지 장학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길원이가 꿈을 이루기에는 많이 모자라니



길원이 후원자가 되어주실 분

·문의: 김만식(재권 요셉)

703-403-1185

·주소: Caritas Wo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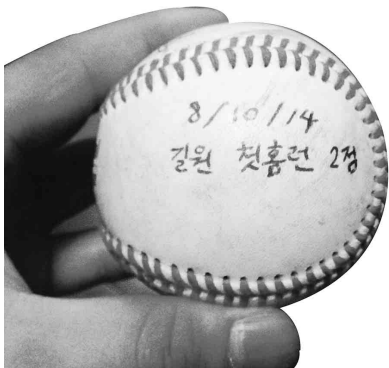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메모에 '길원이 후원'이라고 써 주세요)

다. 길원이를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길원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원이가 꿈을 이루면 한국 농아들도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길원이가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길원이가 하나의 밑알이 되고 한국 농아인 사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국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족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달러씩 후원하며 아이들과의 삶에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원 연결이 되면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50달러는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고, 10달러는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571-334-5817(김현숙 요안나)

유태현(남·16세)·지은 (여·14세)

태현이는 5살 때, 지은이는 3살 때 아빠를 잃고 엄마와 함께 세 식구가 평창군에서 오래된 낡은 15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현이는 주말에는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스스로 자립의 길을 걸으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은이는 일찍 철이 들어 엄마가 없을 때는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하는 착한 여학생입니다.

생활은 엄마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취직(현재 영월군 노인요양원) 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적은 급

여로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하며, 매월 학교교재비를 조금씩만 지원해 주신다면 태현, 지은이가 아빠 없이 스스로 장래를 생각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추천: 영월군노인요양원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 2015년 5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15년 6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4년 12월
곽종무	~2015년 12월
권정미 (안나)	~2015년 5월
금화열 / 로사	~2015년 12월
김경진	~2015년 6월
김경호 / 김영혜	~2015년 6월
김남식 (안드레아)	~2014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14년 12월
김다슬	~2014년 12월
김동연	~2014년 12월
김동한	~2015년 12월
김동환	~2014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5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5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4년 12월
김박철 / 안젤라	~2014년 12월
김성현	~2015년 5월
김승현 / 현동	~2015년 12월
김영애	~2015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4년 12월
김윤상	~2014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5년 5월
김재인 (안나)	~2014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4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14년 12월
김줄리아	~2014년 6월
김진석 / 소피아	~2014년 12월
김홍자 (아네스)	~2014년 12월
류익희	~2015년 12월
민금선 마리아	~2015년 12월
민들레회	~2015년 12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5년 8월
박나연	~2015년 3월
박민규	~2015년 4월
박연실 Silliana	특별후원
박종자	~2015년 5월
배석범	~2015년 1월
베드로회	특별후원
서봉임	~2015년 12월
성모회	특별후원
소병각	~2014년 12월
손범희	~2014년 12월
송상훈	~2014년 12월
신세균	~2014년 12월
안나회	~2015년 6월
안병화	~2014년 12월
안상용 / 안세실리아	~2015년 6월
안종윤 베드로	~2014년 12월
어근혜	~2015년 3월
어도로테아	~2015년 12월
어미연	~2014년 12월
염윤기	~2015년 5월
오성웅	~2015년 3월

일반/업소/단체/기관	
오영환	~2014년 12월
오진환	~2014년 12월
우기업 / 데레사	~2015년 12월
원승철	~2014년 12월
유정식	~2014년 12월
이갑현	~2014년 1월
이강영 (데오도로)	~2014년 12월
이근애 마리아	~2015년 3월
이문희	~2015년 5월
이미나	~2015년 5월
이수호	~2015년 5월
이순남	~2015년 5월
이순용 (안젤라)	~2015년 5월
이순희 아네스	~2015년 6월
이스텔라	~2015년 12월
이승구 / 분다	~2014년 12월
이알비나	~2015년 4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5년 6월
이은배	~2015년 4월
이정일	~2014년 12월
이창선	~2014년 1월
이천우 / 헬레나	~2014년 12월
이태선	~2015년 12월
이태옥 / 리타	~2015년 10월
장경옥 / 윤성	~2015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5년 8월
전헤드워 / 전선희	~2015년 3월
정창조 / 루시아	~2015년 4월
조봉순 (아가다)	~2015년 12월
주삼성 / 레지나	~2015년 12월
차도미나	특별후원
최마리아	~2015년 12월
최재필	~2014년 12월
최정선 엘리사벳	~2014년 12월
하명희 (말가리따)	~2015년 4월
하상희	특별후원
한마리아	~2014년 12월
허영숙	~2014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5년 6월
홍진원	~2015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4년 12월
Garvey, Cheryl K	~2015년 4월
Lee, Alan / Lee, Susie	특별후원
Lum, James / Lum, Sue	~2015년 6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동결연 / 시설후원	
루치아 쉼터	
박찬영	~2015년 8월
송승혜	~2015년 8월
이윤아 쟈마	~2015년 8월
베론성지	
서봉임	~2015년 12월
북평성당	
김병운	~2015년 1월
윤경자	~2015년 12월
서울장학결연	
최병렬 / 최경희	~2015년 5월
영월 노인요양원	
유자경	~2015년 5월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운	~2015년 1월
유자경	~2015년 5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운	~2015년 1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15년 5월
박지영 / 이창훈	~2015년 6월
윤경자	~2015년 12월
윤진기	~2015년 5월
이연철 / 박희임	~2015년 5월
장경옥 / 윤성	~2015년 12월
정일희	~2015년 6월
조영혜	~2015년 6월
차명자	~2015년 5월
원주 비안네성소	
금화열	~2015년 12월
김두하	~2015년 12월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운 / 안나	~2015년 1월
김하은	~2015년 5월
이명자	~2015년 6월
이연철 / 박희임	~2015년 5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연희	~2015년 12월
김선민 Andrew	~2015년 5월
김효중 아네스	~2015년 5월
제천 노인복지관	
조프란치스코	~2015년 5월
천사들의 집	
박인옥 / 도원	~2015년 5월
임영재	~2015년 6월
바오로회	특별후원
성심원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에라도르	
백마리아	특별후원
유보나 / 유지광	~2015년 6월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변레지나	특별후원
안순상팀	특별후원

아동결연 / 시설후원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김돈현	~2015년 6월
김미정 아네스	~2015년 6월
김영식 / 김소영	~2015년 6월
익명 P-2	~2015년 12월
윤재원 / 장정인	~2015년 6월
이지연 마리아	~2015년 5월
흑빛공부방	
김순섭	~2015년 5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5년 12월
박완다	~2015년 12월
최평란	~2015년 12월
편성대	~2015년 12월
한귀병	~2015년 4월
네팔	
김명숙	~2015년 5월
김명철 / 소화	~2015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5년 12월
김헬리시아	~2015년 12월
변충식	~2014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14년 12월
이명자	~2015년 12월
이은배	~2014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5년 12월
네팔 St. Paul School	
국영주 발비나	특별후원
김헬리시아	특별후원
신현준 / 이은혜	특별후원
마다가스카르	
김형기	특별후원
김데레사	특별후원
김헬리시아	특별후원
이명자	특별후원
전미경	특별후원
최영준/신상희	특별후원
Choi, Elmer/Choi, Julie	특별후원
성삼의 딸 수녀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필리핀 빠아따스	
신세균	~2014년 12월
신현준	특별후원
이기녕	~2015년 6월
재정기금	
김명철	~2015년 4월
윤경자	~2015년 12월
차명자	~2015년 5월
홍세실리아	~2015년 6월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 소가 변경된 회원님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전화: (571)432-9868 또는
email: caritasva@gmail.com

아동결연 / 시설후원	
서길원 후원	
강준우	~2015년 12월
김명철/데레사	~2015년 12월
김문철	특별후원
김시몬	~2015년 12월
김연희	~2015년 12월
김영애	~2015년 6월
김정임	특별후원
김정희/준수	특별후원
김재인 안나	특별후원
민일성/멜라니아	~2015년 8월
박완다/박용걸	~2015년 12월
박인옥/박도원	~2015년 5월
소병각	~2015년 12월
안순상	특별후원
양정화	~2015년 6월
윤상	~2015년 6월
이상길/이명자	~2015년 12월
이정렬 마리아	~2014년 12월
장경옥	~2015년 4월
한영옥	~2015년 12월
한장협	특별후원
홍세실리아	특별후원
Bumgartner, Betty	~2015년 12월

사랑의 모금통

Beulah Cleaners / 김일근	2015년 2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2014년 4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용	2014년 2월, 2015년 5월	Maynine Inc / 용복순	2014년1월, 3월, 6월, 8월, 10월, 12월, 2015년 3월, 5월
Capitol Cafe/Suh, James	2014년 2월, 2015년 4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014년 12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2014년 4월, 9월, 12월	Pickett Rd Cleaners/김창겸	2015년 4월
Green Cleaners / 이수호	2014년 6월	Skyline Cafe	2014년 8월, 2015년 4월
John's Cafe / 김재영	2014년 11월	Spices & Beyond / 윤태혁	2014년 1월, 11월
Jon's Cafe / 최용태	2015년 2월	Tyson's Super Cleaners/정대니얼	2014년 3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4년 1월1일 ~ 2015년 5월 31일)

권정미 안나(일반), 김줄리아(일반), 박나연(일
희(일반), Lum, Sue/Lum, James(일반), 윤진기
반), 손범희(일반), 어근혜(일반), 이근애 마리아(일
(아동결연), 김하은(아동결연), 윤재원/장정인(아동
결연)
반), 이미나(일반), 이스텔라(일반), 전헤드워/전선

2014년 1월 ~ 2014년 12월분 후원금 내역 : 총 \$112,429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2014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9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합계
총 후원금	10,210	4,550	14,268	4,073	4,619	4,634	3,889	3,971	8,702	20,843	22,703	9,967	\$112,429
원주후원회	1,460	1,820	1,953	953	649	1,324	479	1,031	4,742	833	993	3,267	\$19,504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0
루치아쉼터		240	3,600						240				\$4,080
베론성지			120										\$120
북평성당	60		120	60		60	120	60	60	780	60		\$1,380
서울장학결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200		\$1,200
영월 노인요양원	500	50	150	50	50	50	50		100	150		1,000	\$2,150
영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		300	120	60	120	180	60	180	240	60		\$1,380
원주복지관	1,020	420	480	720	420	900	620	1,020	560	560	600	580	\$7,90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60							60			\$120
정선복지관	480	60	180	300	60	300	360	120	120	120	120	60	\$2,280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50	50	71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260
제천시 노인복지관		60	120			240			240				\$660
천사들의 집	60	120		300	60	120	60	300	60	120	180	1,060	\$2,440
충주성심학교야구부	100	140	100	140	100					700			\$1,28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210	930	390	210	210	390	570	390	210	210	210	390	\$4,320
흑빛공부방	60	160	1,960	100	600	120	720	440		100	100		\$4,360
난방비지원										16,000			\$16,000
산타행사											17,520		\$17,520
해외후원금													
네팔	800	200	200			100							\$1,300
네팔 St. Paul School			1,000		1,000				1,000			1,000	\$4,000
마다가스카르	3,000		1,040	500					600		1,250	2,100	\$8,490
성삼의딸	950												\$950
성심원	950												\$950
에쿠아도르			300					300				300	\$900
파푸아 뉴기니			1,125	210		660	360		240		200		\$2,795
필리핀 빠야따스	250	100	160	160	1,160		120			820	1,060	60	\$3,890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 회비납부 방법:

1.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2.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로 써 주시면 됩니다.

3.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웹사이트 :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홍 세실리아, 김명철
윤경자, 차명자
운영이사: 윤경자, 유자경, 노상문
차명자, 김만식, 김현숙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본 회지는 1년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홍알벗,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전
판
부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길원이 후원 / 영월 노인요양원 후원 /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후원 신청서

구 분	길원이 후원 () 영월 노인요양원 후원 ()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후원 ()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 (\$) 또는 매월 (\$) 특별후원 ()				



불우이웃돕기

미용 이벤트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제8회 미용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느미라지 헤어살롱에서 이틀간 전 직원이 자원봉사와 더불어 미용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특별기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시: 9월 19일(토) 오전 9:30 ~ 오후 6:00
9월 20일(일) 오전 9:00 ~ 오후 5:00

장소: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 571-432-9868 (카리타스) / 703-968-3010 (성당)



헤어컷 (수입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기부됩니다)

- 시니어(70세이상) : \$5 - 여성 : \$20
- 초등학생 이하: 여 \$10, 남 \$7 - 남성 : \$10

스킨케어 (사용 기간 1년 (수입금 50%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기부됩니다))

1. 일반 마사지 (1시간 소요)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800 (10회)	\$500
2. 경락 마사지 (1시간 30분 소요)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1300 (10회)	\$600
3. 복합성 관리 (1시간 30분 소요)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1300 (10회)	\$600

* 구입상품권은 환불이 안됩니다.

* 기한 지난 상품권은 사용 불가합니다.
(피부관리 상품권 기한-1년, 기타 상품권 기한-3개월)

헤어 (수입금 50%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기부됩니다)

1. 파마 & 헤어컷 (단발머리 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75	\$40
4. 매직 펴 (단발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250	\$100

2. 파마, 코팅 & 헤어컷 (단발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150	\$70
5. 셋팅 펴 (단발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200	\$100

3. 롤 펴 & 헤어컷 (단발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90	\$50
6. 디지털 펴 (단발기준)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250	\$100

타투 (반영구 화장 2~3년 유효, 문신 아님/수입금 50%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기부됩니다)

1. 눈썹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300	\$100
3. 입술라인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500	\$150

2. 아이라인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450	\$100 (위 라인) \$150 (아래 라인)
4. 속눈썹 Extention	Reg. Price	카리타스 특별할인 가격
	\$250	\$80

행사스페셜

- 검버섯, 주름, 사마귀, 점 제거 스페셜
(수입금 50%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기부됩니다)
당일 상담 후 Reg. Price에서 **70%** 할인
- 무료 메이크업 강의 (행사장에서)
- 피부상담을 직접 현장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모든 헤어제품 (썬크림, 고대기, 드라이어 등) 도
살롱 가격보다 저가에 판매합니다.

특별후원 :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

언론협찬 : 중앙일보, 한국일보, 주간워싱턴, 주간연예, WBS 워싱턴 TV

주최 :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